

내신 기출

국어 창비 (1학기)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내신 기출 국어 창비>>

◆차례◆

1. 독서는 나의 힘

- (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_김찬호-----1쪽 (37문제)
- (2)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_박상률-----15쪽 (26문제)

2. 문학의 갈래

- (1) 비_정지용-----30쪽 (51문제)
- (2) 삼포 가는 길_황석영-----43쪽 (47문제)
- (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_노희경-----64쪽 (43문제)
- (4) 보지 못한 폭포_김창협-----84쪽 (29문제)

3. 국어와 우리 생활

- (1) 음운의 변동-----94쪽 (61문제)
- (2) 한글 맞춤법의 원리-----110쪽 (65문제)
- (3)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127쪽 (24문제)

4. 소통하는 말과 글

- (1)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_전남일---136쪽 (20문제)

▶정답 -----146쪽

▶해설 -----148쪽

(버전: 2020.03)

2-(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2-(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제재 소개

- 1996년 문화방송 창사 특집 4부작으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 드라마
- 작가가 암 투병을 하던 어머니를 여의고 사모곡처럼 쓴 작품임.
- 바쁘다는 이유로, 또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때로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낸 가족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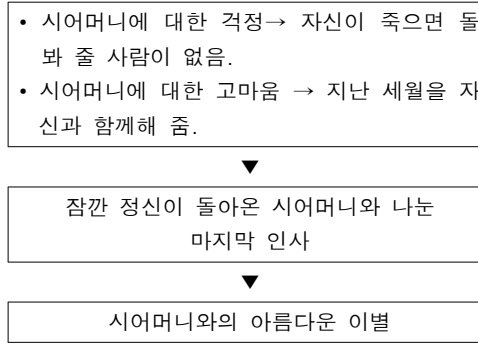
핵심 정리

| | |
|----|--|
| 갈래 | 드라마 대본 |
| 성격 | 애상적, 신파적 |
| 주제 | 영원한 이별을 맞는 가족의 슬픔과 사랑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을 앞둔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가족들의 심정이 잘 드러남. • 이별의 감정을 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기법과 장치를 활용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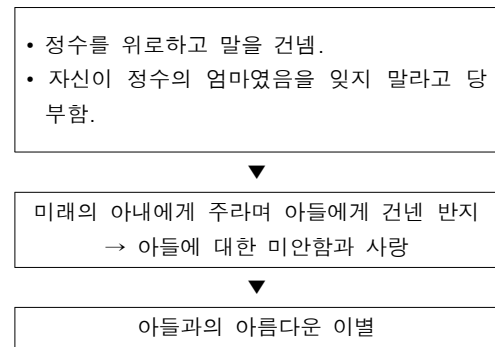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등장인물

| | |
|-----|--------------------|
| 인희 | 50대 가정주부 |
| 정철 | 인희의 남편. 의사 |
| 연수 | 인희와 정철의 딸. 직장인 |
| 정수 | 인희와 정철의 아들. 재수생 |
| 할머니 | 인희의 시어머니. 중증 치매 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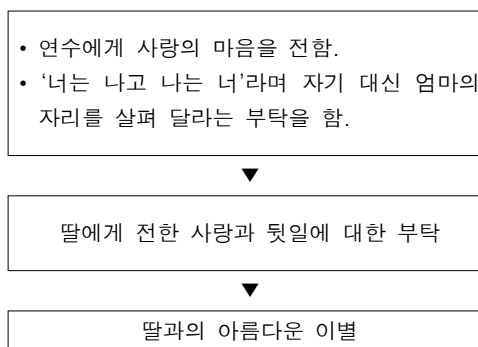
인희와 시어머니의 이별



인희와 아들 정수의 이별



인희와 딸 연수의 이별



2-(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인희와 남편 정철의 이별

- 인희를 위해 정철이 저녁을 차림.
- 정철이 아픈 인희를 씻겨 줌.
- 인희는 자신을 매장해 달라고 부탁함.
- 인희는 정철이 언제 자신을 보고 싶어 할지 궁금하게 여김.

부부로서 나누는 평범한 일상과
이별에 대한 준비

남편과의 아름다운 이별

제목에 담긴 작가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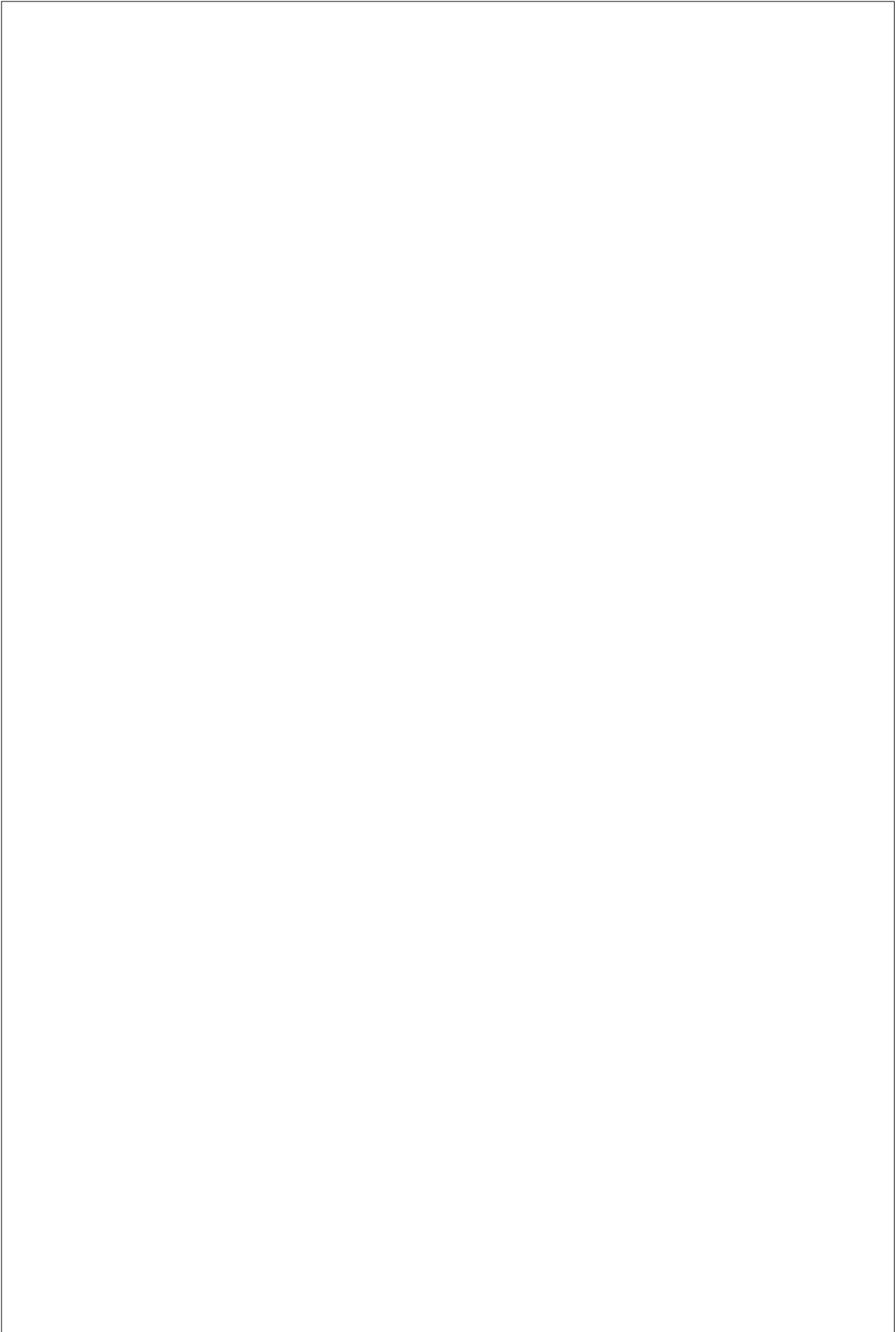
서로 소원하던 가족이 엄마와 이별하게 되면
서로 소중함과 사랑을 깨닫게 됨.

이별이 이별로 끝나지 않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의미를 강조함.

2-(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2-(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가족 뒷바라지로 항상 분주한 인희는 남편 정철이 퇴직하면 교외에서 살기 위해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궁암 말 선고를 받게 되고 수술을 받았지만 병세는 더욱 악화된다. 인희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

S# 73. 침실

조금은 어두운,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인희, 정철, 조금은 낯설고 멧쩍게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정철: (멀뚱하게 앞만 보며) 텔레비전이라도 하나 갖다 놓을걸. 심심하네.
 인희: 여보, 나 소원 있어.
 정철: 뭐?
 인희: ㉒나 무덤 만들어 줘.
 정철: 언제는 대답해서 싫다고 화장해 달라며?
 인희: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별로더라. 강에 뿌렸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여기다 뿌렸는지, 저기다 뿌렸는지 도통 기억에 없고. 여기 가서 울다 저기 가서 울다, 꼭 미친 사람 처럼. 당신하고 애들은 그러지 말라고.
 정철: ……
 인희: 당신은…… 나 없이도 괜찮지?
 정철: (인희를 본다.)
 인희: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정철: (고개 돌리며) 싫어.
 인희: 나…… 보고 싶을 것 같아?
 정철: (고개를 끄덕인다.)
 인희: 언제? 어느 때?
 정철: 다.
 인희: 다 언제?
 정철: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인희: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다.) 또?
 정철: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으며)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인희: 또?
 정철: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인희: 또?
 정철: 술 먹을 때, 술 깼을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깼을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명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집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중략)

S# 74. 몽타주

1. 정원에서 돌을 고르며 행복한 얼굴을 한 인희와 정철.
2. 화장실에서 정철에게 등목을 해 주는 인희.
3. 서로 밥을 먹여 주는 인희와 정철.
4. 거실 소파에서 인희, 정철 무릎에 누워 있다. 정철, 재미난 책을 읽어 주고, 인희는 재미있는지 환하게 웃는다.

S# 76. 침실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온다.
 인희, 정철의 팔에 안겨 깊은 잠이 들어 있다.
 정철, 물기 가득한 눈으로 인희를 안고 있다.

정철: (인희의 죽음을 느낀다. 인희를 보지 않고) 여보.
 인희: ……
 정철: 여보…….
 인희: ……
 정철: 인희야.

그러나 인희는 대답 없고, 정철, 이를 앓다물고 운다.
 눈물 똑 떨어져 인희의 뺨 위로 흐른다.
 인희, 너무도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다.
 그런 두 사람 보여 주며 카메라 멀어지면서, 엔딩.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분당중사고 (경기)

1. 윗글을 감상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희의 대사 중에는 반어적인 표현이 나타나.
 - ② 인희의 갑작스런 유언에 정철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해.
 - ③ 엄마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신보다 남겨질 가족을 걱정한구나.
 - ④ 제목은 가족의 소중함을 가족원의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된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 ⑤ #74에서 행복한 인희의 모습을 연달아 보여준 건 이어지는 결말 장면의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함일거야.

분당중사고 (경기)

2. S#76의 인희와 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유사한 시를 고르면?
- ① 껌데기는 가라. /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껌데기는 가라.
 -신동엽, <껌데기는 가라>
 - ②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귀천>
 - ③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정지용, <유리창>
 - ④ 우리는 머리맡에 엮디어 /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올렸고 / 아버지의 침상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⑤ 너는 어디로 갔느냐 /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 다만 여겨는 열매가 떨어지면 특하고 소리가 들리는 세상.
 -박목월, <하관>

분당중학교 (경기)

3. <보기>는 윗글을 원작으로 하는 소설의 일부이다. 윗글과 <보기>의 인물 심리 제시 방법의 차이점을 갈래 상의 특징과 연관 지어 서술하시오.

<보기>

그녀는 문득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연애할 때나 했을 법한 언제 보고 싶을 것 같냐는 유치한 질문이 그에게 던져졌다.

그는 가슴 속에 울컥 슬픔이 솟구쳤다. 그녀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어린애처럼 울고 싶었다. 그러나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 그녀를, 그녀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알기에 그는 울음 대신 마음속에 빗장처럼 걸려 있던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뱉어냈다.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명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 할 때, 설날 지짐이 할 때, 추석날 송편 집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물기를 가득 머금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녀도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할 만큼 감정의 진폭이 커지고 있음을 느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4.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무덤은 주검을 보호하려는 뜻에서 비롯되었으나, 차츰 죽은 이를 기리는 기념물의 성격으로 바뀌면서 무덤 양식들이 다양화되어 무덤 양식은 생활상이나 믿음·습속을 이해할 수 있다. 묘제에는 크게 보아 토장·수장·화장·풍장 등 몇 가지의 기본형식이 있다. 토장은 땅속에 파묻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역적·시간적으로 보아 가장 널리 보편화된 형식이며, 물 속에 넣는 것을 수장, 주검을 불에 태우는 것을 화장, 그리고 땅 위에 주검을 드러나게 하여 썩히거나 짐승에게 먹히도록 하는 것을 풍장이라고 한다.

- ① 화장을 거부하여 보편화된 묘제 형식의 실용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 ② 죽음을 앞두고 묘제 형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 ③ ‘우리 엄마’를 화장했던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슬픔을 위로받고자 한다.
- ④ 무덤이 갖는 기념물로서의 성격을 바탕으로 자신의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우리 엄마’와 ‘나’의 생활상이 달라진 데 따른 무덤 양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5. S# 74.의 장면들은 시간 몽타주 기법과 공간 몽타주 기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적고, 해당 몽타주 기법에 대해 예시의 형식에 따라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예시) 이 장면들은 **몽타주 기법에 해당한다. **몽타주 기법은 ()하는 기법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한다.
- ②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시·공간적 제약이 비교적 적다.
- ④ 제작 시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 ⑤ 스크린을 통해 관객과 직접적으로 교류한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장소의 변화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② 극의 흐름이 반전됨으로써 인물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 ③ 대사보다 인물의 행동과 상황 묘사 위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장면과 장면의 연결이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 ⑤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시에 보여주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가족 뒷바라지로 항상 분주한 인희는 남편 정철이 퇴직하면 교외에서 살기 위해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끔 느끼는 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자궁암 말기임을 알게 된다. 정철은 아프다는 아내의 말을 흘려들은 자신을 자책한다. 수술 후 인희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인희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며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 인희는 자신이 죽으면 시어머니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한다.

S# 51. 화장실 안

인희,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할머니에게 새 속옷을 갈아입히고 있다.

윗옷까지 마저 다 갈아입혀 주고.

인희: (할머니 눈을 보며, 마음 아픈 것을 참고) 좋아요?

할머니: …….

인희: (쪼그려 앉으며) 개운하지?

할머니: (인희의 눈을 보고 있다. 정신이 들었는지 인희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인희: (눈물을 참고, 대견해하며)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네. (할머니 손을 잡고, 차마 눈은 못 보고)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다시 할머니 눈을 보며)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친정 어머니 먼저 가지고 애들 아비 공부한다고 객지 생활할 때, 애들도 없고 외롭고 그럴 때도…… 어머니는 내 옆에 있었는데……. 나 밉다고 해도 가끔 나한테 당신이 좋아하시는 거 아꼈다가 주곤 하셨는데……. 어머니, 이제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연수: (E.) 엄마?

할머니: (갑자기 버럭, 밖에 대고) 저리 가, 이년아!

인희: (놀라, 할머니를 보고 정신이 드는가 싶어 눈물이 난다.) 어머니, 아까 미안해요. 내 마음 알죠?

할머니: (눈물이 나는 것을 참는다.) …….

인희: (손을 잡고, 울며)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질신 드실 때 허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요. 아범이랑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기다릴게. (손을 잡아 얼굴에 대고 울며) 아이고, 어머니…….

S# 66. 전원주택 앞

연수의 차, 선다.

S# 67. 차 안

연수, 정철의 안전띠를 풀어 주고, 몸을 뒤로 돌려 인희를 본다.

연수: 다 왔어요.

인희: (깜빡 자다가 일어나 둘레를 보며) 여긴, 우리 집이야?

정철: 내가 연수랑 대충 정리했어. 들어가자. (보따리를 들고 내린다.)

인희: (마음이 짠해져, 집을 한번 본다.)

정수: (눈물을 참으며, 창밖만 본다.)

인희: (정수의 손을 잡고) 정수야, 엄마 봐야지?

정수: (힘들게 고개 돌리다, 차마 인희를 못 보고 고개 속인다.)

인희: (마음 아픈 것을 참고, 정수의 남방 단추를 모두 채워 주고) 엄마, 내일이라도 다 쉬었다 싶으면 같게. 울어?

정수: (고개를 젓는다.)

인희: (장난처럼, 밝게) 정수야, 나 누구야?

정수: (고개를 들고 눈을 부릅떠 눈물을 참고, 아이처럼) 엄마.

인희: 다시 한번만 더 불러 봐.

정수: (목이 메어) 엄……마.

인희: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정수야, 너…… 다 잊어버려도, 엄마 얼굴도 웃음도 다 잊어버려도…… 니가 이 엄마 배 속에서 나온 것은 잊으면 안 돼.

정수: (힘들게 끄덕인다.)

인희: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서, 정수 손에 쥐여 주고) 이거, 네 마누라 줘.

정수: !

인희: 잊어 먹을까 봐 그래. (정수를 안으며 눈물이 주룩 흐르고) 아무리 뒤져 봐도 엄마가 이거밖에 줄 게 없다. 미안해.

정수: (안겨, 이를 양다물고 운다.)

인희: (정수를 떼어 내고, 창가로 얼굴을 돌려 외면하고) 잠깐 내려 봐. 누나랑 할 얘기 있어.

정수, 내린다.

인희: (의자에 몸을 기대 나오는 눈물을 참고, 고개를 모로 돌리며, 연수에게) 연수야,

엄마가 아무래도 곧 정신을 놓칠 것 같다. 자꾸 가물가물해.

연수: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며 마음 아프게 고개를 끄덕인다.)

인희: 엄마, 연수 사랑해. 알지? (눈물을 주룩 흘린다.)

연수: 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저도…… 엄마 사랑해요.

인희: (주입하듯) 그래, 사랑해. 아주 많이 사랑해.

연수: …….

인희: ㉢너는…… 나야. 엄마는…… 연수야.

연수: (소리 죽여 울며) 네.

인희: 이제 동생 데리고 가. 엄마, 아버지랑 좀 쉬어야겠다. (아쉬워하며) 아이고, 우리 딸. (등 뒤에서 연수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춘다.)

연수: (눈물이 연이어 흐른다.)

S# 71. 욕실 밖

인희: (E.) 눈 매워.

정철: (E.) 그러니까 눈을 꼭 감아야지.

인희: (E.) 감아도 매워.

정철: (E.) 괜찮아.

물소리가 난다.

S# 73. 침실

조금은 어두운,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인희, 정철, 조금은 낮설고 멋쩍게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정철: (멀뚱하게 앞만 보며) 텔레비전이라도 하나 갖다 놓을걸. 심심하네.

인희: 여보, 나 소원 있어.

정철: 뭐?

인희: 나 무덤 만들어 줘.

정철: 언제는 대답해서 싫다고 화장해 달라며?

인희: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별로더라. 강에 뿌렸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여기다 뿌렸는지, 저기다 뿌렸는지 도통 기억에 없고. 여기 가서 울다 저기 가서 울다, 꼭 미친 사람 처럼. 당신하고 애들은 그러지 말라고.

정철: …….

인희: 당신은…… 나 없이도 괜찮지?

정철: (인희를 본다.)

인희: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정철: (고개 돌리며) 싫어.

인희: 나…… 보고 싶을 것 같아?

정철: (고개를 끄덕인다.)

S# 74. 몽타주

1. 정원에서 돌을 고르며 행복한 얼굴을 한 인희와 정철.
2. 화장실에서 정철에게 등목을 해 주는 인희.
3. 서로 밥을 먹여 주는 인희와 정철.
4. 거실 소파에서 인희, 정철 무릎에 누워 있다. 정철, 재미난 책을 읽어 주고, 인희는 재미있는지 환하게 웃는다.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8.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이 달라질 때마다 무대를 상황에 맞게 꾸며야 한다.
- ② 가족 간의 사랑과 영원한 이별을 그리고 있는 극문학이다.
- ③ 대사, 행동, 표정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 제시하는 갈래이다.
- ④ 화면에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소리만으로 이루어지는 장면도 있다.
- ⑤ 제목의 '아름다운 이별'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별이라는 의미이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공간의 수평적 이동을 의미하고, ㉡은 공간의 수직적 이동을 의미한다.
- ② ㉠은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웠으나, ㉡에서는 심리적 거리가 멀어졌다.
- ③ ㉠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은 상대의 처지에 대한 걱정이 중심 정서이다.
- ④ ㉠과 ㉡은 모두 상대방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죽고 나면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담고 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10. S# 67의 '반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수의 슬픈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사물이다.
- ② 정수에 대한 인희의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 ③ 정수가 결혼할 때 인희가 부재할 것임을 전제로 한다.
- ④ 며느리에게 이어져야 하는 물건으로 가문을 상징한다.
- ⑤ 감정을 절제하고 있던 정수가 울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11. 극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인희'가 ㉠처럼 말한 의미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가족과 이별해야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음을 토로함
- ② 연수는 엄마의 인희에게 소중한 딸이었음을 드러냄
- ③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달라는 당부
- ④ 딸에 대한 엄마로서의 각별한 사랑 전달
- ⑤ 딸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안타까움 고백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가족 뒷바라지로 항상 분주한 인희는 남편 정철이 퇴직하면 교외에서 살기 위해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끔 느끼는 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자궁암 말기임을 알게 된다. 정철은 아프다는 아내의 말을 흘려들은 자신을 자책한다. 수술 후 인희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인희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며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 인희는 자신이 죽으면 시어머니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한다.

S# 51. 화장실 안

인희,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할머니에게 새 속옷을 갈아입히고 있다.

윗옷까지 마저 다 갈아입혀 주고.

인희: (할머니 눈을 보며, 마음 아픈 것을 참고) 좋아요?

할머니: …….

인희: (조그려 앉으며) 개운하지?

할머니: (인희의 눈을 보고 있다. 정신이 들었는지 인희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인희: (눈물을 참고, 대견해하며)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네. (할머니 손을 잡고, 차마 눈은 못 보고)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다시 할머니 눈을 보며)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친정어머니 먼저 가시고 애들 아버지 공부한다고 객지 생활할 때, 애들도 없고 외롭고 그럴 때도…… 어머니는 내 옆에 있었는데……. 나 밉다고 해도 가끔 나한테 당신이 좋아하시는 거 아꼈다가 주곤 하셨는데……. 어머니, 이제 기억 하나도 안 나지?

S# 67. 차 안

연수, 정철의 안전띠를 풀어 주고, 몸을 뒤로 돌려 인희를 본다.

연수: 다 왔어요.

인희: (깜빡 자다가 일어나 돌레를 보며) 여긴, 우리 집이잖아?

정철: 내가 연수랑 대충 정리했어. 들어가자. (보따리를 들고 내린다.)

인희: (마음이 짠해져, 집을 한번 본다.)

정수: (눈물을 참으며, 창밖만 본다.)

인희: (정수의 손을 잡고) 정수야, 엄마 봐야지?

정수: (힘들게 고개 돌리다, 차마 인희를 못 보고 고개 숙인다.)

인희: (마음 아픈 것을 참고, 정수의 남방 단추를 모두 채워 주고) 엄마, 내일이라도 다 쉬었다 싶으면 갈게. 울어?

정수: (고개를 젓는다.)

인희: (장난처럼, 밝게) 정수야, 나 누구야?

정수: (고개를 들고 눈을 부릅떠 눈물을 참고, 아이처럼) 엄

마.

인희: 다시 한번만 더 불러 봐.

정수: (목이 메어) 엄……마.

인희: (눈물이 그렇그렁하여) 정수야, 너…… 다 잊어버려도, 엄마 얼굴도 웃음도 다 잊어버려도…… 니가 이 엄마 배 속에서 나온 것은 잊으면 안 돼.

정수: (힘들게 끄덕인다.)

인희: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서, 정수 손에 쥐여 주고) 이거, 네 마누라 줘.

정수: !

인희: 잊어 먹을까 봐 그래. (정수를 안으며 눈물이 주룩 흐르고) 아무리 뒤져 봐도 엄마가 이거밖에 줄 게 없다. 미안해.

정수: (안겨, 이를 앙다물고 운다.)

S# 70. 거실

정철과 인희, 차를 마시고 있다.

정철: 훌훌 불면서 먹어, 뜨거워.

인희: 무슨 차인지 향이 좋네. 무슨 차야?

정철: (차를 마시며) 몰라. 그냥 향이 좋은 차야.

인희: (웃으면서 바깥 전경을 보며) 꼭 신혼여행 온 것 같다. 당신이 공부한다고 우리 신방도 못 차리고 산 것 알죠?

정철: 응.

인희: 말년에 복이 튼다더니, 이런 날이 오려고 그랬나 보네. 당신은 좋겠다. 이런 집에서 앞으로 십 년은 더 살겠지.

S# 74. 몽타주

1. 정원에서 둘을 고르며 행복한 얼굴을 한 인희와 정철.
2. 화장실에서 정철에게 등목을 해 주는 인희.
3. 서로 밥을 먹여 주는 인희와 정철.
4. 거실 소파에서 인희, 정철 무릎에 누워 있다. 정철, 재미난 책을 읽어 주고, 인희는 재미있는지 환하게 웃는다.

S# 76. 침실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온다.

인희, 정철의 팔에 안겨 깊은 잠이 들어 있다.

정철, 물기 가득한 눈으로 인희를 안고 있다.

정철: (인희의 죽음을 느낀다. 인희를 보지 않고) 여보.

인희: …….

정철: 여보…….

인희: …….

정철: 인희야.

그러나 인희는 대답 없고, 정철, 이를 앙다물고 운다.

눈물 똑 떨어져 인희의 뺨 위로 흐른다.

인희, 너무도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다.

그런 두 사람 보여 주며 카메라 멀어지면서, 엔딩.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천안중양고등학교 (충남)

12. 윗글과 각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 51: 인희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S# 67: 인희가 자식들과 이별하는 공간을 좁은 차 안으로 설정하여 인물들에게 더욱 집중하도록 한다.
- ③ S# 70: 인희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S# 74: 몽타주 기법을 활용해서 인물들의 행복한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어 죽음을 앞둔 인물의 처지와 대비함으로써 슬픔을 배가하고 있다.
- ⑤ S# 76: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오도록 조명 처리를 하여 인희가 가족들과 아름답게 이별했음을 나타낸다.

천안중양고등학교 (충남)

13. S# 70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정철은 곧 차를 끊어 거실로 가져왔다.
 “무슨 차야? 향이 좋네.”
 “몰라. 그냥 향이 좋은 차야. 훌훌 불어서 마셔. 뜨거워.”
 “꼭 신혼여행 온 것 같다. 당신 공부한다고 우리 신방도 못 차리고 산 거 알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방긋 미소 짓는 인희를 정철은 처연하게 본다. 이름 모를 차 한 잔에도 저렇게 행복해하는 여자에게 그동안 왜 그렇게 못 해 줬던가.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아니 한 달에 십 분만이라도 저렇게 아내를 기쁘게 해 주었더라면 지금처럼 마음이 헛헛하지는 않았을 것을.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

- ① S# 70의 지시문은 <보기>의 내용에 모두 반영되었다.
- ② <보기>는 S# 70에 비해,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 ③ <보기>에서 인물의 심리는 작품 안에 위치한 서술자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
- ④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S# 70에 반영할 때에는 지시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⑤ S# 70은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의해서만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서 인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면북고등학교 (서울)

14. 희곡과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희곡은 영화상연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시나리오는 상영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시나리오는 ‘장면’과 ‘막’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 ④ 희곡은 장면 표시, 해설, 대사로 이루어져 있다.
- ⑤ 시나리오는 등장 인물 수의 제약이 비교적 덜하다.

성동고등학교 (서울)

15. <보기>를 참고할 때, S# 74에서 몽타주 기법을 사용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보기>

몽타주(Montage) : 필름의 편집 기술로 결합, 또는 짜서 꾸민다는 뜻이다. 하나하나 찍은 여러 장면을 적당히 맞추어서 효과 있는 하나의 화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① 상황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필요하므로
- ② ‘인희’의 상태에 개의치 않는 ‘정철’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 ③ 가족들을 남겨 두고 먼저 떠나야 하는 ‘인희’의 두려움과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서
- ④ ‘인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정철’의 죄책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 ⑤ 죽음을 앞둔 ‘인희’의 처지와 대비되는 행복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결말의 슬픔을 배가(倍加)하기 위해서

청원고등학교 (서울)

16. 윗글을 통해 ‘인희’의 삶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부간의 갈등으로 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였다.
- ② 의사의 아내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이 살았다.
- ③ 바쁘게 지내지만 틈틈이 어머니를 돌봐주는 남편 덕분에 위로를 받으며 살았다.
- ④ 평생 가족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다.
- 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성장한 아이들 덕분에 만족하며 살았다.

2-(4) 보지 못한 폭포

2-(4) 보지 못한 폭포

제재 소개

- 원제목은 「늑암심폭기(凜巖尋瀑記)」로, 김창협이 늑암 계곡의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가 보지 못한 경험을 살려 쓴 수필
- 폭포를 보러 갔다가 보지 못하고 내려온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끼고 얻은 아쉬움, 깨달음을 드러냄.

핵심 정리

| | |
|----|---|
| 갈래 | 고전 수필 |
| 성격 | 경험적, 성찰적 |
| 주제 | 폭포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과 안타까움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온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씀. • 자신의 경험과 그에 따른 감상 및 깨달음을 함께 밝힘. |

공간의 이동에 따른 글쓴이의 경험

- 노인이 폭포로 가는 길을 일러 줌.
- 골짜기 안 너럭바위에서 단풍 든 숲의 아름다움에 감탄함.
- 폭포로 가는 길을 계속 찾지 못하고 헤맸.
- 자익에게서 폭포가 보잘 것 없다는 말을 들음.
- 가지 않고 돌아와 황 씨에게 속은 것을 유감스러워함.
- 산에서 내려와 노인을 다시 만나 진짜 폭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워함.

가짜 폭포와 진짜 폭포

| 가짜 폭포 | 진짜 폭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익이 본 폭포 • 볼 만한 것이 없는 폭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지 못한 폭포 •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봤을 폭포 |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 경험 | 깨달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가던 길을 의심함. • 자익의 말만 듣고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옴. • 자신이 가려던 길에 진짜 폭포가 있음을 알게 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길을 더 가지 않고 멈추어 폭포를 보지 못한 점이 안타까움. • 진짜 기이한 폭포가 있으므로 뒷날에 유람할 거리가 생겨 기쁨. |

[참고] 교술 갈래란?

- 글쓴이 자신이 직접 어떤 사실이나 경험, 생각을 이야기하는 갈래
- 가사(歌辭), 편지, 야담, 기행, 일기, 수필, 비평 등이 이에 속함.
- 형식적 제약이 적고, 화자나 서술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글쓴이의 주관적 판단이나 생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풍패동(風珮洞)의 동쪽은 바로 늪암곡(漉巖谷)이다.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소월석(掃月石) 아래에 이르러 대천(大川)으로 들어간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깝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하루는 ㉡마을 주민 황 씨(黃氏)가 ㉢아우 자익(子益)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고 말해 주었다. 자익이 ㉣내게 알려 주기에 마침내 혼연히 함께 갔다. 아우 대유(大有)와 조가 인상(寅祥)과 악상(嶽祥)이 따라왔다. 세 사람은 모두 말을 타고 두 아이는 걸어갔다.

골짜기 어귀에 이르자 인가 서너 채가 보였다. 산을 등진 채 물을 두르고 있어 발두둑과 울타리가 썰렁했다. 문을 두드리니 한 구부정한 노인이 나왔다. 수염과 눈썹이 온통 희어 칠팔십 세쯤 되어 보였다. 폭포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히 일러 주었다.

골짜기 안으로 일 리쯤 들어가서는 말을 풀밭에 놓아두고 지팡이를 짚고 나아갔다. 얼마 안 있어 너럭바위 하나가 보이는데 비탈이 쳐서 앉을 만했다. 물이 그 위를 쟁글대며 흘렀다. 소나무 두 그루가 이를 덮고 있어 기이하고 장한 데다 울창하게 가지가 뻗어 있었다. 곁에는 단풍 숲이 있는데 또한 높고 컸다. 잎이 한창 선홍빛이었으므로 동행들이 문득 몹시 기뻐하였다. 이 속에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여기서부터는 오솔길이 굽이굽이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좋은 곳을 얻게 되니 나아가면 갈수록 더 기뻐할 만했다. 하지만 폭포로 들어가는 길은 놓쳐서 찾지 못하고 그저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오륙 리쯤 갔는데도 폭포는 종내 찾을 수가 없었다. 지쳐서 바위 위에 앉아 산과일을 따서 먹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멧부리는 빙 둘러서고 산마루는 첩첩인데 시내 골짜기는 깊고도 그윽해 바라다보이는 것은 온통 서리 맞은 숲의 붉고 누런 단풍뿐이었다. 동북쪽은 경계가 더욱 그윽이 빼어나 바라보니 은은하여 마치 신기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지라 마음이 몹시 즐거웠다.

날은 이미 누엿해졌지만 또 폭포를 놓칠 수 없어 다시금 옛길을 따라서 내려가 비로소 한 갈래 좁은 길을 찾았다. 앞서 노인이 일러 준 것과 비슷해서 시험 삼아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얼마 못 가 바로 산등성으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다.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은 알 수가 없었다.

얼마 후 골짜기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자익이 먼저 시내로 내려갔다가 이곳에 이른 것이었다. 그의 말이 자기가 폭포를 보았다 하므로 어찌 생겼더냐고 묻자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약한 물줄기가 이를 덮어 조금도 불만한 게 없다고 했다. 내가 대유와 서로 보면서 입을 벌려 웃으며 말했다.

“이런 것을 구경하자고 발품을 팔겠는가?”

마침내 가지 않고 돌아와 비탈진 바위 위에서 밥을 먹었다. 자익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이후로 마땅히 천하에 말만 번드레한 못 믿을 인사들이 더욱 싫어질 듯합니다.”

황 씨에게 속고 만 것을 유감스러워한 것이었다.

산에서 내려온 뒤 길을 알려 준 ㉥노인을 만나 본 것을

얘기하자 노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폭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 도달할 수가 없습지요. 꼭 산등성이를 따라서 가야 이르러 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야 ㉧내가 갔던 길이 바른 길인 줄을 알았다.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하지만 또한 폭포의 실상이 자익이 본 것 정도에 그치지 않음이 기뻐고, 잠시 남겨 두어 뒷날의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 더욱 여운이 있음을 깨달았다. 유람한 날은 신미년(1691년) 8월 21일이고, 그 이튿날 이 글을 쓴다.

-김창협, <보지 못한 폭포>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1. 이 글에 나타나는 교술갈래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가 알게 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형식이 자유로워 특별한 전개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특정한 사물을 관찰한 후 이와 관련된 감상을 적고 있다.
- ④ 글쓴이가 경험한 사실과 이에 대한 주관적 성찰이 나타난다.
- ⑤ 일상에서 만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편적 이치를 깨닫고 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2. 이 글에 나타나는 글쓴이의 경험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골짜기 어귀 인가에서 노인을 만나 폭포 가는 길을 알게 되었다.
- ② 골짜기 안에서 소나무와 단풍 숲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였다.
- ③ 깊은 골짜기의 그윽한 풍경에 취해서 폭포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 ④ 폭포가 보잘것없다는 아우 자익의 말을 믿고 허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 ⑤ 노인이 일러 준 길을 끝까지 가지 않아서 유람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3. 이 글에서 인물들의 말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에게 ㉢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해 주었다.
- ② ㉣은 처음에 ㉠이 한 말을 믿고 ㉤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 ③ ㉤은 ㉠이 ㉣에게 한 말을 믿고 ㉢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 ④ ㉥은 ㉤의 일행이 ㉢를 보지 못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 주었다.
- ⑤ ㉦은 ㉤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자신을 후회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4. 이 글을 읽은 독자가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일이든지 남의 말을 믿고 시도할 경우는 실패하기 쉬운 법이야.
- ②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아.
- ③ 한 번 시작한 일은 힘든 과정이 있어도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아.
- ④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좋아.
- ⑤ 평범한 경험에 대해서도 같이 성찰하면 다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검단고등학교 (인천)

5. <보기>는 위 글을 읽고 학생들이 대화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글쓴이가 조금만 더 산동성이를 올라갔다면 폭포를 발견할 수 있었을텐데...그 점이 안타까웠어. 나도 공부를 할 때 중간에 포기한 경험이 많아서 더 와 닿았던 것 같아.

B: 맞아.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C: 나중에 유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경험에서 긍정적인 깨달음을 얻는 글쓴이의 태도에 감탄했어.

D: 난 황씨처럼 번드레한 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 황씨의 말만 믿고 여러 사람이 고생했잖아.

E: 남의 말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익의 태도에서 나도 친구의 말을 함부로 판단한 적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검단고등학교 (인천)

6.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점감이 느껴지도록 풍경을 묘사해야겠군.
- ② 경험한 내용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묘사해야겠군.
- ③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주도록 해야겠군.
- ④ 경험한 내용과 깨달음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서술해야겠군.
- ⑤ 인물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아내야겠군.

구산고등학교 (경남)

7.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글쓴이가 폭포를 보러 출발하게 된 계기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 2) 밑줄 친 ㉠와 같이 자익이 생각한 까닭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신도림고등학교 (서울)

8.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행의 동기와 풍경 묘사가 드러나 있다.
- ②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 ③ 자연의 섭리에 대한 통찰이 드러나 있다.
- ④ 글쓴이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 있다.
- ⑤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적 주제가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루는 마을 주민 황 씨(黃氏)가 아우 자익(子益)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고 말해 주었다. 자익이 내게 알려 주기에 마침내 혼연히 함께 갔다. 아우 대유(大有)와 조카 인상(寅祥)과 악상(嶽祥)이 따라왔다. 세 사람은 모두 말을 타고 두 아이는 걸어갔다.

골짜기 어귀에 이르자 인가 서너 채가 보였다. 산을 등진 채 물을 두르고 있어 발두둑과 울타리가 썰렁했다. 문을 두드리니 한 구부정한 노인이 나왔다. 수염과 눈썹이 온통 희어 칠팔십 세쯤 되어 보였다. 폭포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히 일러 주었다.

골짜기 안으로 일 리쯤 들어가서는 말을 풀밭에 놓아두고 지팡이를 짚고 나아갔다. 얼마 안 있어 너럭바위 하나가 보이는데 비탈이 저서 앞을 만했다. 물이 그 위를 쟁글대며 흘렀다. 소나무 두 그루가 이를 덮고 있어 기이하고 장한 데다 울창하게 가지가 뻗어 있었다. 곁에는 단풍 숲이 있는데 또한 높고 컸다. 잎이 한창 선홍빛이었으므로 동행들이 문득 몹시 기뻐하였다. 이 속에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여기서부터는 오솔길이 굽이굽이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좋은 곳을 얻게 되니 나아가면 갈수록 더 기뻐할 만했다. 하지만 폭포로 들어가는 길은 놓쳐서 찾지 못하고 그저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오륙 리쯤 갔는데도 폭포는 종내 찾을 수가 없었다. 지쳐서 바위 위에 앉아 산과일을 따서 먹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멧부리는 빙 둘러서고 산마루는 첩첩인데 시내 골짜기는 깊고도 그윽해 바라다보이는 것은 온통 서리 맞은 숲의 붉고 누런 단풍뿐이었다. 동북쪽은 경계가 더욱 그윽이 빼어나 바라보니 은은하여 마치 신기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지라 마음이 몹시 즐거웠다.

날은 이미 누엿해졌지만 또 폭포를 놓칠 수 없어 다시금 옛길을 따라서 내려가 비로소 한 갈래 좁은 길을 찾았다. 앞서 노인이 일러 준 것과 비슷해서 시험 삼아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얼마 못 가 바로 산등성으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다.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은 알 수가 없었다.

얼마 후 골짜기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자익이 먼저 시내로 내려갔다 이 곳에 이른 것이었다. 그의 말이 자기 폭포를 보았다 하므로 어찌 생겼더냐고 묻자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약한 물줄기가 이를 덮어 조금도 불만한 게 없다고 했다. 내가 대유와 서로 보면서 입을 벌려 웃으며 말했다.

“이런 것을 구경하자고 발품을 팔겠는가?”

마침내 가지 않고 돌아와 비탈진 바위 위에서 밥을 먹었다. 자익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이후로 마땅히 천하에 말만 번드레한 못 믿을 인사들이 더욱 싫어질 듯합니다.”

황 씨에게 속고 만 것을 유감스러워한 것이었다.

산에서 내려온 뒤 길을 알려 준 노인을 만나 본 것을 얘기하자 노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폭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 도달할 수가 없습지요. 꼭 산등성을 따라서 가야 이르러 굽어볼 수가 있답니다.”

그제야 내가 갔던 길이 바른 길인 줄을 알았다.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하지만 또한 폭포의 실상이 자익이 본 것 정도에 그치지 않음이 기뻐고, 잠시 남겨 두어 뒷날의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 더욱 여운이 있음을 깨달았다. 유람한 날은 신미년(1691년) 8월 21일이고, 그 이튿날 이 글을 쓴다.

-김창협, <보지 못한 폭포>

(나)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서까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 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書架)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차치리(且置履)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떼었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로 그것을 ‘탁(度)’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박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탁을 가지러 집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소. 당신의 발로 신어 보면 될 일이 아니오.”

차치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탁(度)’과 ㉡‘족(足)’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에서

분당중앙고등학교 (경기)

9. (가)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익은 실속 없이 번드레한 말에 속은 자신을 자책한다.
- ② 글쓴이 일행은 폭포를 찾지 못해 골짜기 사이를 헤맨다.
- ③ 자익은 시내를 따라 갔기 때문에 진짜 폭포에 이르지 못했다.
- ④ 글쓴이는 아우 자익의 말을 듣고 폭포를 구경하러 나서게 된다.
- ⑤ 노인은 글쓴이 일행이 진짜 폭포를 찾지 못한 이유를 알려주었다.

3-(1) 음운의 변동

3-(1) 음운의 변동

1. 음운 변동의 개념과 유형

| | | |
|-----------|-------------------------------------|--|
| 개념 |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 |
| 유형 | 교체 | 어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 |
| | 축약 | 서로 다른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 |
| | 탈락 | 두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 |
| | 첨가 |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경우 |

2. 음운 변동 현상

| | | |
|--------------|---------------|--|
| 교체 현상 | 비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국물[궁물] 유음 ‘ㄹ’이 비음 ‘ㄴ, ㅇ’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염려 [[염녀]] |
| | 유음화 |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실내[실래] |
| | 구개음화 |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굳이[구지] |
| | 된소리되기 | 안울림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인 ‘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국밥[국빡] |
| 축약 현상 | 거센소리되기 | ‘ㄱ, ㄷ, ㅂ, ㅅ’과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백합[배깅] |
| 탈락 현상 | 모음 탈락 |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두 모음이 이어서 소리 날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여 발음되는 현상 [예] 가- + -아 → 가 |
| 첨가 현상 | 반모음 첨가 |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뒤에 모음 ‘ㄴ, ㄹ’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조사 ‘에’가 결합할 때, 반모음 ‘ㅣ[j]’가 새로 생겨 발음되는 현상 [예] 되어[되어/되어] |

3. 두음 법칙의 개념과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 | |
|----------------|---|
| 개념 |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 적용되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ㅣ, ㅑ, ㅕ, ㅛ, ㅜ’ 앞에서의 ‘ㄹ’과 ‘ㄴ’ 소리가 탈락하는 경우 [예] 남녀(男女) : 언자(女子) ‘ㅏ, ㅑ, ㅓ, ㅗ, ㅛ, ㅜ, ㅠ, ㅡ, ㅐ, ㅔ, ㅖ’ 앞의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경우 [예] 쾌락(快樂) : (ㄴ)원(樂園) |

3-(1) 음운의 변동

모락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협력 → [협녁] ㉡ 휴만 → [휴만]
 ㉢ 옷맵시 → [온맵씨]

- ① ㉠ : 인접한 자음의 특성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② ㉡ : 음운 변동 후 음운의 수가 많아진 것은 아니다.
- ③ ㉢ : 2번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④ ㉠, ㉡, ㉢ :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⑤ ㉠, ㉡, ㉢ :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6. 다음은 문법 수업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 |
|--|---|-----------------|--------------------|--|--|
| 도 입 | <p>• 선생님의 설명 : ‘굳이[구지], 끝이[끄치], 붙이다[부치다]’처럼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디다[견디다], 티끌[티끌], 흠이불[흔이불]’ 등에서도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지만 ‘ㅈ, ㅊ’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학습활동을 차례대로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p> | | | | |
| 전 개 | <p>(1) 각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td> </tr> </table> <p>(2) (1)을 통해 알 수 있는 음운 변동 환경을 정리해 보자. → ㉡에서는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나고, ㉣에서는 ‘흠이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난다.</p> <p>(3) 모음 ‘ㅣ’가 속해 있는 형태소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 ㉡의 ‘-이’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이고, ㉣의 ‘이불’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이다.</p> |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
|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 | | | |
| 정 리 | <p>• 선생님의 설명 : 위의 학습활동에서 살펴본 것처럼 ㉠ 현상은 형태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p> | | | | |

- ① 구개음화/한 형태소/형태소 경계/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②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③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④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⑤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양재고등학교 (서울)

7. 다음 문장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모두 찾아 <조건>에 맞게 표준 발음을 쓰시오.

나는 오늘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지은이와 선릉역 서점에 갔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서 조금 늦게 서점에 도착했다.

<조건>

작성 방법 : 국민(궁민)

양재고등학교 (서울)

8.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에 적용된 음운 변동이 동일하게 나타난 예가 아닌 것은?

<보기>

국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우리 누나는 법학과[벼팍파]에 다니고 있다.
- ㉡ 이번 방학에 뜻하지[뜨타지] 않은 행운을 만났다.
- ㉢ 밥을 다 먹었는데[머건는데] 빵도 먹었다.
- ㉣ 친구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나눠따].
- ㉤ 마을 최고의 권력자[궐력짜]는 촌장이었다.

- ① ㉠올해 입학식은 3월 2일이였다.
- ② ㉡이렇게 벼듯한 가구를 왜 버리는지 모르겠다.
- ③ ㉢새로 이사 간 우리 집은 부엌만 크다.
- ④ ㉣수지가 나에게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다.
- ⑤ ㉤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9.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개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음운의 변동 전후로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교체’는 개수의 변화가 없고 ‘탈락’과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며 ‘첨가’는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어난다.

- ① ‘배춧잎[배춧님]’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② ‘줄넘기[줄럼기]’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③ ‘국화꽃[구과꼐]’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④ ‘달다리[닥따리]’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 ⑤ ‘편입학[피니팍]’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10. <보기>를 참고할 때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은?

<보기>

자음 동화는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거나 양쪽 모두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자음 동화 현상에는 ‘비음화, 유음화’가 있다.

이러한 자음 동화 현상은 변화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가 있다. ‘순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뒤의 소리가 앞의 소리를 닮는 것이고, ‘역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앞의 소리가 뒤의 소리를 닮는 것이다.

- ① 광한루 ② 흙만 ③ 대관령 ④ 달나라 ⑤ 굽는

양재고등학교 (서울)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보기>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ㅈ, ㅈ, ㅉ), ㅂ(ㅍ, ㅃ, ㅍ, ㅍ)’ 뒤에 ‘ㄱ, ㄷ, ㅂ, ㅅ, ㅈ’가 올 때
- ㉡ 어간 받침 ‘ㄴ(LX), ㄹ(ㄹ)’ 뒤에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한자어에서, ‘ㄱ’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 ㉣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 | | |
|--------|------|--------|----|
| ㉠ | ㉡ | ㉢ | ㉣ |
| ① 책상 | 신다 | 절기(節氣) | 흙다 |
| ② 국밥 | 젊다 | 발전(發展) | 넓다 |
| ③ 깎두기 | 달다 | 전등(前燈) | 밝다 |
| ④ 압박감 | 끼었다 | 설계(設計) | 핥다 |
| ⑤ 야단법석 | 뛰어넘다 | 결과(結果) | 웁다 |

신송고등학교 (인천)

12.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쓰시오.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문법탐구 모둠활동에서 같은 단어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를 공부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담은’은 (㉠), ‘담 앞에’는 이어서 발음하면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신송고등학교 (인천)

13.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① 달혀[다쳐]에서는 ㉣의 음운현상만 일어난다.
- ② 꽃밭이[꽃빠치]에서는 ㉠의 음운현상만 일어난다.
-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의 음운현상만 일어난다.
- ④ 값이[갑씨]에서는 ㉠과 ㉡의 음운변동이 일어난다.
- ⑤ 맨입[맨넙]에서는 ㉠과 ㉡의 음운현상이 일어난다.

신송고등학교 (인천)

14.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안팍 → [안팍], 부역 → [부역]
 ㉡ 법학 → [버팍], 낱고 → [나코]
 ㉢ 꽃눈 → [꼰눈], 벨는 → [벤는]

- ① ㉠은 음절의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음운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있는 것은 ㉡뿐이다.
- ③ ㉢은 조음위치에 동화된 역행적 비음화 양상을 보여준다.
- ④ ㉢에는 ㉠과 동일한 음운변동 양상이 포함되어 있다.
- ⑤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옷 한 벌 → [오 탄벌]을 들 수 있다.

신송고등학교 (인천)

15. <보기>의 음운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번에는 밭이랑에 토마토와 옥수수를 심었다.

| | | | |
|------|-----|-----|-----|
| 음운현상 | ㉠ | ㉡ | ㉢ |
| 밭이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음절의 끝소리 [밭이랑] | ㉠첨가 [밭니랑] | 구개음화 [바치랑] |

- | | | |
|--------------------|-----------------|---------------|
| ② ㉠첨가 [밭니랑] | 비음화 [반니랑] | 구개음화 [바치랑] |
| ③ 음절의 끝소리 [밭이랑] | ㉠첨가 [밭니랑] | 비음화 [반니랑] |
| ④ 음절의 끝소리 [밭이랑] | 자음축약 [바디랑] | 구개음화 [바치랑] |
| ⑤ ㉠첨가 [밭니랑] | 자음군단순화 [반니랑] | 비음화 [반니랑] |

금촌고등학교 (경기)

16. <보기>를 <자료>의 단어들에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비음화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비음 'ㄹ, ㄴ'의 앞에서 파열음 'ㅂ, ㄷ, ㄱ'이 비음 'ㄹ, ㄴ, ㅇ'으로 바뀌는 현상이고, 둘째, ㉡'ㄹ, ㅇ'의 뒤에서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ㅂ, ㄷ, ㄱ'과 'ㄹ'이 만나면 'ㄹ'이 'ㄴ'이 되고, 이렇게 변해서 된 'ㄴ'을 닮아서 그 앞의 'ㅂ, ㄷ, ㄱ'이 각각 비음 'ㄹ, ㄴ, ㅇ'이 되는 현상이다.

한편, 유음화는 ㉣유음 'ㄹ'의 앞뒤에서 'ㄴ'이 'ㄹ'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자료>

침략, 백로, 권력, 만머느리, 물난리

- ① '만머느리'은 ㉠의 규칙에 따라 [만머느리]로 발음해야겠군.
- ② '침략'은 ㉡의 규칙에 따라 [침략]으로 발음해야겠군.
- ③ '백로'은 ㉢의 규칙에 따라 [백노]로 발음해야겠군.
- ④ '권력'은 ㉢, ㉣의 규칙에 따라 [궐력]으로 발음해야겠군.
- ⑤ '물난리'는 ㉣의 규칙이 두 번 적용되어 [물랄리]로 발음해야겠군.

4-(2) 한글 맞춤법의 원리

1. 한글 맞춤법의 개념과 필요성

| | |
|------------|--|
| 개념 | 한글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뜻함. |
| 필요성 |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으로서, 올바른 표기 생활을 위해 맞춤법이 필요함. |

2.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 | |
|------------------------------|---|
| 한글 맞춤법 총칙의 제1항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원칙 1. '소리대로 적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적는 것을 의미함. • 한글은 표음 문자이자 음소 문자이므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해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함. <p>예) 돌[돌], 눈물[눈물], 꿈[꿈]</p> |
| 원칙 2. '어법에 맞도록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형태소를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동일하게 표기함. • 단어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될 수 있으므로,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음. →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으면 그 뜻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음. <p>예) 읽어[일거], 읽는[읽는], 읽자[익짜] → '읽-'</p> |

3.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과 필요성

| | |
|--|---|
|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 | 띄어쓰기의 필요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 → 독립적으로 쓰이는 최소의 언어 단위원 단어(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감탄사, 조사)는 띄어 써야 함.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한글 맞춤법 제41항) → 다만,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하게 그 앞의 말에 붙여 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띄어쓰기를 하면 안 한 경우보다 독해가 훨씬 수월함. •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하도록,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알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문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임. |

발곡고등학교 (경기)

1.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쓴 문장은?

- ① 몹시 더웠는데 바람을 쐬니까 기분이 좋다.
- ② 칼국수를 먹어야 하니 깍뚜기를 듬뿍 담아라.
- ③ 모든 학생들이 대청소를 하느라 야단법석이다.
- ④ 정부는 낮은 출산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⑤ 올 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이전 년도보다 높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2. ㉠~㉣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 쓴 것으로 바른 것은?

남자 :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수없이많은 것들이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되지요. ㉡그저시간이 지난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개의 의이파리들을되돌려주고도아무소리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를 한 마리를 길러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했습니다. 덤, 덤, 덤 ㉣난뭔가진실한결안것같습니다. 덤,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그게유일한자랑이될 겁니다.

- ① ㉠ : 헤아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 ② ㉡ :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 ③ ㉢ : 수천개의 이파리들을 되돌려 주고도
- ④ ㉣ : 난 뭔가 진실한 결 안 것 같습니다.
- ⑤ ㉤ :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3. 다음 글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갖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침 운동으로 줄넘기를 시작한지 이틀째다. 줄넘기를 시작하면 오 분만에 숨이 찬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래도 한달 동안 꾸준히 해 볼 생각이다. 큰 욕심은 없다. 소녀시대 윤아만큼 날씬해지고 싶을 뿐이다.

- ① '시작한지'에서 '지'는 '동작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② '오 분만'에서 '만'은 시간이 얼마간 계속되었다는 의미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③ '안 된다'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는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④ '한달'에서 '달'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⑤ '윤아만큼'에서 '만큼'은 '같은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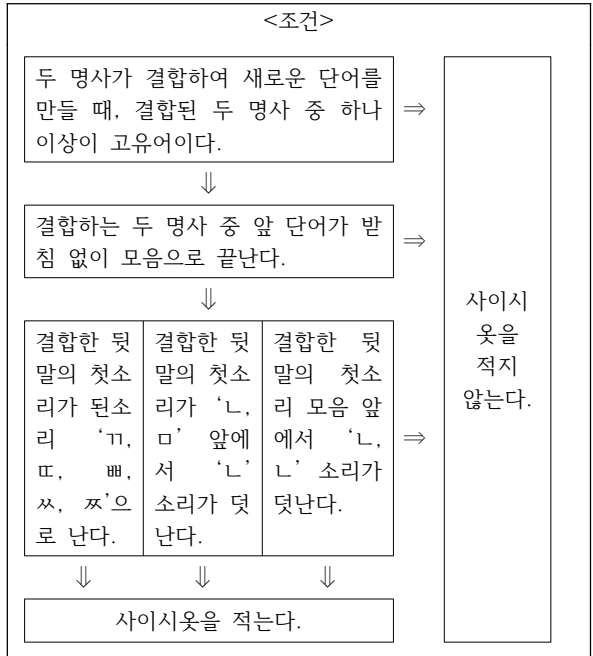
4. 다음 중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쓰지 않은 사람은?

강철 : 점심시간에 했던 풋살 경기는 어떻게 됐어?
 어준 : 12반이 이겼어. 전반전에는 삼 대 삼이었는데, 후반전에 12반이 한 골을 더 넣었지.
 아영 : 그런데 심판이 매우 편파적이었다고 하는데?
 순이 :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지 않나?
 용민 : 네가 내일 학교에 가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볼게.

- ① 강철
- ② 어준
- ③ 아영
- ④ 순이
- ⑤ 용민

발곡고등학교 (경기)

5. <조건>을 참고하여 각 단어의 정확한 표기와 표기의 근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뒷말'은 뒷말 '일'의 모음 'ㅣ'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② '양치물'의 뒷말 '물'의 첫소리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③ '비소리'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④ '국숫집'은 고유어 '국수'와 '집'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다.
- ⑤ '갯수'는 한자어 개(個)와 수(數)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고유어가 아니지만 예외로 사이시옷 적는 것을 인정한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6. (가)를 바탕으로 (나)의 표현을 검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제35항>
 [붙임2] ‘기’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새, 썼’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나)

아!

또 뭔데?

또 뭔데?라니 심심해서 그렇지. 아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졸려서 바깥에 **햇볕 좀 쬐려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누가 갑자기 말을 거는 거야.

어떤 여자가 말 걸었다는 **말도 안 돼**는 얘기는 하지 마라.

남자였음. 고등학생이었음. 갑자기 나보다 늙어 보이는 고등학생이 말 거는 거임. 고등학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몰랐음. 근데 막 나한테 여기 대학교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묻는 거야.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오면 돼**.” 라고 대답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봐요.**” 하고 가더라?

아, 나 바빠. **일 해야 되**. 빠이

<보기>

ㄱ. ‘햇볕 좀 쬐려고’는 고치지 않는다.
 ㄴ. ‘말도 안 돼는’은 ‘말도 안 되는’으로 고친다.
 ㄷ. ‘타고 오면 돼’는 ‘타고 오면 되’로 고친다.
 ㄹ. ‘나중에 봐요’는 ‘나중에 봐요’로 고친다.
 ㅁ. ‘일 해야 되’는 ‘일 해야 돼’로 고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효문고등학교 (서울)

7. ㉠~㉣에 대한 답변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발표 주제>
 올바른 띄어쓰기의 사용

<발표 내용>

1. <한글맞춤법 총칙 제2장>에 대한 설명
2. 햇갈리기 쉬운 띄어쓰기의 예시 설명

<발표를 들은 후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

㉠ : ‘어쩔수없었다’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가고 싶은 데가 있다’에서 ‘데’는 왜 띄어 쓰나요?
 ㉢ : ‘피아니스트마냥’에서 ‘마냥’을 앞에 말에 붙여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노력한 만큼’과 ‘나도 너만큼’에서 ‘만큼’의 띄어쓰기는 왜 다른가요?
 ㉤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에서 ‘도와’와 ‘드린다’는 붙여 쓰야 하나요? 띄어 쓰야 하나요?

- ① ㉠ : ‘어쩔 수 없었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② ㉡ :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③ ㉢ : ‘마냥’은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④ ㉣ :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나도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⑤ ㉤ : ‘드린다’는 ‘도와’에 결합한 보조 용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8. 아래의 글에서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있는 대로 찾아 모두 바르게 고치시오. (단,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고치면 감점)(맞춤법에 어긋난 부분과 바르게 고친 내용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

친구는 건넌방에 있었다. 나는 숨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조용히 방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랫집은 텅 비어있었고 대문은 잠겨 있었다. 주변을 살살히 뒤졌지만 열쇠 같은 건 없었다. 달빛 아래 나무가지가 언뜻언뜻 보였고 깨끗이 정리된 건물 구석에는 찻간 불빛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어렴풋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빛 근처에서 말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짹짹 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회전틀이 왜 이렇게 별로야?”

“그러게 얼른 이 지긋지긋한 셋방을 떠야하는데.”

순간 지금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면 살아날 확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3까지 세고 뛰어 나가기로 했다. 밤하늘의 달은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4-(2) 한글 맞춤법의 원리

흥진고등학교 (경기)

9.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만 골라 묶은 것은?

<보기>
 가. 달팽이는 더드미로 감각을 느낀다.
 나. 오늘 저녁에 우리 고깃집에서 만나자.
 다. 나는 김밥과 매운 떡볶이를 좋아한다.
 라. 학생들은 법석을 피우며 청소를 했다.
 마. 그녀는 씹쓸한 맛이 나는 차를 좋아한다.
 바. 인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 ① 가, 바 ② 가, 나, 다
 ③ 나, 라, 마 ④ 가, 다, 라, 바
 ⑤ 나, 다, 라, 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비가’, ‘오니’, ‘핀다’는 소리 나는 대로 단어의 형태를 적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 ‘꽃이’, ‘꽃만’, ‘꽃도’를 [꼬치], [꼐만], [꼐또]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꽃[化]’을 ‘꽃’, ‘꼐’, ‘꼐’이라는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으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나) 한자음 ‘녀, 뇨, 뉴, 니’나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여자(女子), 예의(禮儀)’처럼 적고, 그 외에는 ‘남녀(男女), 혼례(婚禮)’처럼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을’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10. (가)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그새 문이 닫힌 것이다.
 나. 이곳은 나무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다. 마음을 다친 사람에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 ① 가의 ‘닫힌’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② 가의 ‘닫힌’은 독서의 능률이 떨어지는 표기이군.
 ③ 나.의 ‘많-’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표기이군.
 ④ 다.의 ‘다친’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군.
 ⑤ 가의 ‘닫힌’과 다.의 ‘다친’은 발음만으로는 의미를 구분할 수 없군.

흥진고등학교 (경기)

11. (나)를 참고할 때,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진열(陳烈), 성공률(成功率)
 ② 분열(分裂), 외형율(外形律)
 ③ 선렬(先烈), 내재율(內在律)
 ④ 확율(確率), 실패율(失敗率)
 ⑤ 규율(規律), 시청율(視聽率)

흥진고등학교 (경기)

12.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3가지를 찾아 각각 바르게 고치시오. (단, 띄어쓰기 오류는 찾지 말 것.)

<보기>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다. 하지만 난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백분률로 환산해서 적어야 하는데 정답을 모르겠다. 어떤 댓가를 바라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질까? 이런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안됐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부보다는 역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어야 해.

흥진고등학교 (경기)

13.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2. ‘ㄴ, ㄹ,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어(ㅇ)머거(X), 놓아(ㅇ)노코(X)
 [붙임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

1-(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1.① 2.⑤ 3.② 4.(1):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 (2):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5. ④ 6.④ 7.③ 8.② 9.⑤ 10.③ 11.② 12.⑤ 13.② 14.① 15.학창 시절 내내 공부하는 말만 들었기 때문 16.③ 17.② 18.⑤ 19.⑤ 20.④ 21.① 22.④ 23.③ 24.② 25. ③ 26.⑤ 27.꿈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무엇이다. /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28.③ 29.② 30.① 31.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는 것을 통해 얻음 32.대학 입학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 33.③ 34.① 35.⑤ 36.③ 37.②

1-(2)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1.② 2.⑤ 3.② 4.(1): 동일함 (2): 인물의 성격이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됨 5.⑤ 6.④ 7.② 8.② 9.⑤ 10.⑤ 11.④ 12.④ 13.② 14.④ 15.③ 16.① 17.② 18. ① 19.현아가 친구를 통해 시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 '나'에게 현아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상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 오직 현아를 위해 쓴 시이기에 '나'도 시집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20.④ 21.③ 22.⑤ 23.③ 24.① 25.③ 26. (가): 관념적, 추상적 (나): 감정적

2-(1) 비

1.③ 2.④ 3.② 4.③ 5.① 6.④ 7.1) 빗방울이 점차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 2) 빗방울 튀기며 바쁘게 걷어가는 산새의 모습 8.④ 9.② 10.① 11.② 12.산새의 걸음걸이를 사용하여 빗방울을 시각화한 것으로 활유법이 사용되었으며 빗방울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줌. 13.④ 14.① 15.① 16.④ 17.② 18.④ 19.① 20.⑤ 21.⑥산새의 꼬리 ⑥비유 22.⑤ 23.⑤ 24.③ 25.② 26.② 27.④ 28.시각적 이미지 사용 29.④ 30.⑤ 31. ⑤ 32.⑤ 33.① 34.④ 35.④ 36.④ 37.④ 38.의인법 39.물살 40.⑤ 41.③ 42.① 43.청각적, 시각적 44.활유법, 무생물인 비를 생물처럼 표현했기 때문 45.③ 46. ① 47.⑤ 48.② 49.③ 50.④ 51.④

2-(2) 삼포 가는 길

1.⑤ 2.③ 3.③ 4.④ 5.① 6.② 7.② 8.④ 9.⑤ 10.고향

이 도시화 및 산업화가 되면서 고향 상실감에 따른 쓸쓸함 혹은 소외감을 느낌 11.① 12.② 13.⑤ 14.③ 15.④ 16.③ 17.⑤ 18.④ 19.① 20.③ 21.③ 22.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23.① 24.② 25.④ 26.① 27.⑤ 28.⑤ 29.③ 30.⑤ 31.⑤ 32. ② 33.③ 34.② 35.뜨내기 신세 36.④ 37.⑤ 38.② 39. ④ 40.⑤ 41.1인칭 내부 시점에서 3인칭 외부 시점으로 변화함. 42.유대감과 고마움을 느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 43.⑤ 44.③ 45.① 46.① 47.②

2-(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① 2.② 3.윗글은 시나리오로 인물의 심리가 대화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반면, <보기>는 소설로 인물의 심리가 직접 제시되어 있다. 4.③ 5.이 장면들은 공간 몽타주 기법에 해당한다. 공간 몽타주 기법은 각각의 장면을 적절하게 이어 붙여서 스토리가 있는 하나의 내용으로 만드는 기법이다. 6.⑤ 7.④ 8.① 9. ⑤ 10.③ 11.④ 12.③ 13.④ 14.⑤ 15.⑤ 16.④ 17.④ 18.⑤ 19.① 20.⑥: 몽타주 ⑥: 대조 21.② 22.① 23.④ 24.③ 25.④ 26.③ 27.③ 28.⑤ 29.③ 30.⑤ 31.① 32. ④ 33.① 34.③ 35.② 36.④ 37.① 38.⑤ 39.① 40.③ 41.② 42.① 43.③

2-(4) 보지 못한 폭포

1.④ 2.③ 3.⑤ 4.① 5.④ 6.⑤ 7.1) 골짜기 안에 기이한 폭포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어서2) 황 씨에게 속고 만 것을 유감스러워했기 때문에 8.③ 9.① 10.③ 11.⑤ 12.㉠ 객 ㉡ 주 13.② 14.⑤ 15.③ 16.① 17.④ 18.① 19.③ 20.④ 21.⑤ 22.④ 23.① 24.② 25.③ 26. ③ 27.④ 28.⑤ 29.발은 실제적 본질을, 탁은 관념을 나타냄 / 삶의 실제적 본질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음

3-(1) 음운의 변동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고], 선릉역[설릉녁], 갔는데[간는데],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깜따] 8. ⑤ 9.① 10.④ 11.② 12.㉠ [달근] ㉡ [다가페] 13. ② 14.③ 15.③ 16.④ 17.②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②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③ 27.④ 28.⑤ 29.⑤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

리되기 31. (1) [침:낙] (2) 유음인 'ㄹ'이 (3) 비음 'ㄹ'의 뒤에서 (4) 비음 'ㄴ'으로 변하는 (5) 비음화 현상이다. 32.④ 33.① 34.④ 35.④ 36.② 37.⑤ 38.첨가 39.신고, 갑자기, 왔다 40.④ 41.② 42.④ 43.② 44.③ 45.① 46.⑤ 47.② 48.④ 49.① 50.② 51.② 52.③ 53.④ 54.③ 55.① 56.⑤ 57.① 58.⑤ 59.⑤ 60.⑤ 61.③

4-(2) 한글 맞춤법의 원리

1.① 2.④ 3.⑤ 4.③ 5.④ 6.② 7.⑤ 8.살살히→살살이, 나뭇가지→나뭇가지, 싹둑싹둑→싹둑싹둑, 회전률→회전율, 촛점→초점 9.⑤ 10.② 11.① 12.백분률→백분율, 댓가→대가, 빼어야→빼야(뺏어야) 13.② 14.⑤ 15.③ 16.⑤ 17.④ 18.⑤ 19.(1)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2) ㉠ 빗물, 아랫마을 ㉡ 뒷일, 깃잎 20.④ 21.② 22.수만마리가→수만마리가, 선율→선율, 몹시→몹시, 얇은 체→얇은 채, 안된다→안 된다. 23.④ 24.③ 25.③ 26.④ 27.① 28.(1)어름→얼음 (2)어간에 '-음/-ㄹ'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 때문에 '얼음'으로 표기해야한다. 29.꺼져가는 불꽃처럼 사라질 것인가,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 볼 것인가. 30. (1) 황금율→황금률: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2)우유빛→우윳빛: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31.(1)열일곱살,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살'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 쓰는데, '-는데'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32.④ 33.① 34.⑤ 35.① 36.① 37.운동한√만큼√좋은√결과를√얻기를√바랐지만√일등은커녕√꿀찌를√했다 38.1) 머거→먹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2) 여기에서 부터→여기에서부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9.⑤ 40.⑤ 41.④ 42.㉠누나의 해쓱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되셨나봐. ㉡누나, 짹짹한 음식은 몸에 해로워. ㉢어머니의 정이 듬뿍 담긴 반찬을 먹고 힘을 내길 바라. 43.② 44.② 45.잇몸-(4), 대가-(6) 46.몽둥그려→몽뚱그려:㉠, 씹슬한→씹쓸한:㉡ 47.④ 48.④ 49.③ 50.③ 51.② 52.③ 53.⑤ 54. (1)도라간다→돌아가다 (2)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55.② 56.⑤ 57.줄넘기를√시작한√지√이틀째인데√겨우√열√개를√할√뿐이다. 58.⑤ 59.① 60.③ 61.④ 62.③ 63.① 64.ㄱ. 되요→돼요 ㄴ. 뵈요→뵈요

ㄹ: 순대국→순댓국 65.②

3-(3)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1.⑤ 2.① 3.⑤ 4.⑤ 5.④ 6.④ 7.② 8.④ 9.② 10.① 11.④ 12.함축적인 말하기 13.협력의 원리: 진실한 정보만을 말하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 14.④ 15.⑤ 16.③ 17.④ 18.④ 19.④ 20.③ 21.⑤ 22.② 23.① 24.③⑤

4-(1)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

1.⑤ 2.② 3.② 4.③ 5.과거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집들이 하나하나 들어차면서 마을이 생겨나고 그 사이 사이를 따라 길이 저절로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전문 건설업자들이 완성한 것임. 6.⑤ 7.③ 8.② 9.④ 10.④ 11.① 12.② 13.① 14.④ 15.② 16.① 17. 과거: 이웃의 손을 빌려 개별적으로 집을 지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마을을 형성함. / 오늘날: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전문 건설업자들이 완성한 것으로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동네 사람이 되는 급조된 마을을 형성함. 18.④ 19.⑤ 20.도서관이 사이 공간처럼 개인적으로 책을 접하는 동시에 친구들과 공공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끝 -